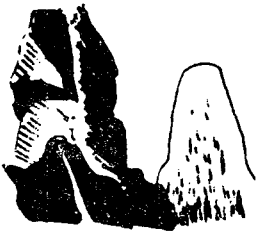


世界 환경보전 활동의 중심지

나·이·로·비 (연재 I)

李斗護 / 환경청 次長

나이로비로 떠나기
직전까지도 바쁘기가
말할 데 없었다.



1987년 6월 5일 UNEP (국제연합환경기구) 제 14차 이사회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중앙에 있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Nairobi/Kenya)로 길을 떠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최근들어 해외출장을 떠날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전일이나 당일의 일과가 무척 바쁘고 부산하게 돌아간다.

지난 2월 17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되는 大氣學會 참석시에도 그 전일의 청와대 신년업무보고, 오후 야간의 국립환경연구원 특강등으로 무척 바쁜 일과를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길을 떠났는데 이번 출장 역시 출장당일이 마침 “세계환경의 날”이라 오전 9:30 부터 시내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사람과 환경”이란 제목으로 약 50분간의 기조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으로 달려가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끝낸 후 교수님들과 점심식사를 나누고 잠실 사무실로 돌아와 약 1시간정도 회의관계 서류를 챙긴 후 귀가하여 그간 약 2개월간 논문작성으로 무리하여 쇠약해진 몸에 약 2시간에 걸쳐 링겔 한 병을 맞은후 7시 정각에 김포공항을 향해 집을 떠났으니 얼마나 바쁜 일과였는지 우리 말에 “미친년 널뛰는 격”이라더니 정말 그런 격의 하루였다.

20시 30분에 탑승을 끝낸 KAL 901편의 보잉 747기는 예정시간보다 10분 늦은 20시 50분에 김포공항을 이륙하여 기수를 동북으로 틀고 앵커레이지 (Anchorage)를 향해 계속 날으는데 서울을 떠나 몇 시간동안은 칠흑같은 밤이 계속되더니 앵커레이지에 도착할 즈음에는 어느새 현지시간으로 아침 10시 35분 (서울시간으로는 익일 새벽 4시 35분)으로 해가 중천에 올라 있었다.

앵커레이지에서 1시간 15분간 체류한 우리 비행기는 현지시간으

로 11시 50분 이륙하여 북극항로(Polar Route)로 파리를 향해 날으는데 흰 구름이 어떻게나 짙게 덮여 있는지 그 신묘한 북극해상의 氷谷이나 雪景은 구경도 할 수 없고 태양은 줄곧 기체 좌편으로 남방 구름바다 끝부분의 雲平線을 따라 계속 서쪽으로 동행을 한다.

저 구름,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계속 증가되어 이 지상에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탄산가스(CO₂), 그리고 또 최근들어 그 농도가 줄어들어 남극과 북극 상공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오존(Ozone) 등은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돌레를 담요와 같이 에워싸 이 지상의 동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도와주는 보온덮개의 역할을 하며, 저 하늘의 태양과 저 우주의 무수한 천체등 이 모든 삼라만상이 이 지구를 인력으로 유지시키고 우리 인간을 이 지상에 서식케 하는 우주의 열개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든가?

현지시간으로 6시 44분 부슬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리 일행(정국현 과장, 추경호 사무관 등 3인)은 파리의 드골(Charles. De-Gaulle)공항에 도착하여 KAL의 이덕근 여객운송과장의 출영을 받았다.

드골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같은날 12:20에 예약된 케냐항공(KQ)을 타기 위해 에어프랑스의 리무진으로 올리(Orle) 공항으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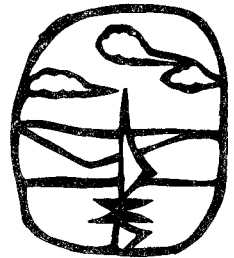
올리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다음 비행기를 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게다가 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리고 하여 공항내에서 아침 요기나 하고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어서 그런지 올리 공항내 식당이라고는 3층에 있는 스낵만이 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공항내에는 어디를 가나 재떨이를 구경할 수 없다. 금연운동의 일환인가 했더니 담배꽂초는 로비나 식당의 바닥, 층층계, 변소간 등 어디에서나 발로 밟고 진채 즐비하게 흩어져 있고 이따금 누런 색깔의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들이 기름걸레로 이들 꺾초와 휴지 등을 쓸어 모으고 있다. 알고 보니 재떨이 不備置는 화재예방책의 한 방법이란다. 그런가 하면 이 공항에는 입자없이 방치된 짐은 공항관리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겠다는 경고가 나붙어 있기도 하다. 이같은 조치는 폭발물 등 위험물에 의한 사고예방책 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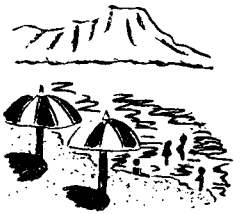
파리현지시간으로 12:20에 출발 예정이던 케냐항공 123편은 예정 시간보다 4시간 20분이나 늦은 오후 4시 40분에 올리공항을 이륙했다. 그러니까 아침 8:00부터 무려 8시간 이상이나 올리공항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8시간 延發했는데도 나이로비 주민인듯한 몇몇 흑인들은 비행기가 시동을 걸자 박수를 치며 좋아 날뛴다. 그것은 모습은 곧 이나라 케냐항공의 연발연착이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올리공항을 떠나 남향으로 기수를 돌린 비행기가 지중해를 건널 무

케냐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예정시간보다
무려 8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백여만마리의 홍학이
集居하고 있는 나
쿠루로 향해 길을 떠났다.



렵에는 이미 낙조의 시간이 되었고,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익일 1시 52분(과리시간으로 0시 52분)으로서 파리-나이로비간
에는 8시간 10분이 소요된 셈이다.

그러니까 6월 5일 오후 7시 서울의 집을 떠나 나이로비의 현관호
텔에 여장을 풀기까지는 꼬박 38시간 40분이나 걸린 셈이다.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신고를 하는데 정장까지 한 세법 세
련된 흑인 2명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승객들을 훑기훑기 저다바 가면
서 여권에 고무인을 뽕뽕 쳐 대다가 우리 차례가 되어 여권을 내미
니 목을 움추리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자못 저돌적인 자세로 여권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기에 “UN환경회의의 참석차 온 한국대표”라
고 해도 막무가내로 여권은 나중에 돌려 줄테니 우선 나가 있으라고
한다. 의외의 푸대접이다.

나중에 여권을 찾아나온 현지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의 장시영영사의
설명에 따르면 근간 나이로비 거주 한국인의 필수행위가 현지에서 물
의를 빚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성급한 몇
몇 동포들 때문에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는 우리들 공직자까지도 피해
를 본다고 생각하니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 왜들 그렇게 성급한
지 모르겠다. 처음 정착할때 인상이 좋아야 앞으로 더 많은 동포의
이주도 가능할 텐데…….

내게 있어 나이로비 방문은 두번째이다. 1985년 5월말에서 6월
초순까지의 제 13차 유엔환경기구이사회 참석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이다. 간밤 자정 넘어 2시경에 호텔에 들었건만 시차탓인지 아침 6
시반경 기상하여 홀로 시가지 산책에 나섰다.

나이로비 중심가인 아가칸로(Agakahn walk), 심바街(Simba S-
treet), 타이파路(Taifa road), 市廳通(Cityhall way), 와타리
이街를 한바퀴 돌아보는데도 일요일의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街路엔 행인이 별로 없고, 인터콘티넨탈호텔 앞 공원이나 가
로변의 자카라다(Jacarada)가로수, 보우간빌라(Bougan Villa)꽃,
모닝글로리(Morning Glory), 음벨라(Umbella)나무 등 모두가 옛
그대로이며 大會議場(Convention Hall)주변상공에는 제비들이 떼를
지어 평화스럽게 날아다닌다.

다만 2년전과 다른점이 있다면 2년전에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던
거지들이 바지가랑이가 타지거나 단추없이 찢어진 허름한 옷차림으
로 이골목 저골목을 방황하거나 공원이나 대로변 벤취위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허다하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나라의 경제사정이 옛만 못하다고 한다.
今次會議의 전체일정은 2주간으로서 6월 19일까지 이지만 내경우
에는 일주일 당겨 귀국해야 할 사정이 있어 현지도착 당일이 마침 일
요일이라서 지난번 왔을 때 한번 봤으면 했으나 시간이 없어 보지 못
하고 아쉬워 했던 100여만마리가 集居하고 있다는 紅鶴(flamingo)
의 무리를 구경하기 위해 대사관의 업무용 차량편으로 나이로비에서

시북방으로 두어시간 실히 소요되는 157 km 지점에 있는 나쿠루(NAKURA)를 향해 길을 떠났다.

도로는 2차선의 포장도로로서 나쿠루까지의 대부분의 구간이 분수령적인 구릉을 따라 닳여있고, 좌우의 약간 경사진 넓은 평원에는 옥수수, 감자, 양배추, 당근, 양파, 푸른콩 등이 심어져 있는 이랑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밭들과 소, 말,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푸른草地와 잘 가꾸어진 樹林地帶가 전개된다.

그리고 路邊 곳곳의 촌락앞에는 도시로 실려가기 위해 화물트럭을 대기하고 있는 농산물들이 줄을 지어 쌓여 있다. 참으로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전원풍경이다.

나이로비에서 나쿠루로 가는 중도에는 먼 발치로 내려다 보이는 나이바샤(Naivasha), 엘멘타이다(Elmenteita) 등 2곳의 호수가 있고 인가는 주로 이 두 호반에 집단화 되어 있다.

路上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탄 승용차나 여행사 표시의 중형 미니버스가 왕래하고 있었고, 이따금 대중버스가 운행되고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농촌주민들은 이들 차량과는 무관하다는 표정으로 보행으로 대로변을 걸어다니고 있다.

어느 한곳에서는 고장난 대형 시외버스를 십여명이 달라 붙어 밀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이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같은 한세상을 살다 갈 같은 인류이건만 이들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느긋하고 자연적이고, 우리는 어찌하여 그다지도 바쁘고 각박한 對人的인가? 그것이 곧 개발의 차이나 開明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未開發 未開明의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움을 택하겠다.

중도에서 이 지방 토산품인 사이살 벽걸이를 사느라고 원주민들과 20~30분정도 실랑이를 하다 보니 나이로비힐튼호텔을 떠난지 2시간 35분만에 나쿠루에 도착했다.

이곳 나쿠루는 인구 50만의 중형도시로서 호반도시이다. 100여만 수 이상의 홀레밍고가 서식하고 있는 나쿠루호는 이나라 초대 대통령 조모켄야타(Mzee, Zomo Kenytha)의 천연자원보존정책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 및 야생동식물관리부(Ministry of Tourism and Wildlife)에서 관리되고 있다.

공원내부는 거의 십수년 묵은 아케치아(Acacia) 밀림이 들어차 있고 호반의 늪지대에는 들던대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홀레밍고가 운집해 서식하고 있다. 땀에 발이 빠져 가까이는 다가가 볼 수도 없고 먼발치에서 쌍안경도 없이 육안으로만 바라보니 관광책자나 벽화로 보는것 만큼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는다.

다소 선망적인 홀레밍고떼 구경을 마치고 다시 나쿠루시내로 나오니 마침 일요일이라 옥내점포는 모두 문을 닫았고 시가지 한쪽 변두리에 路上시장이 우리나라 시골의 5일장처럼 벌어져 있다.

상품들이라고는 20여년전 우리나라 개발초기처럼 나이론 의류나 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곳 케냐 사람들은 느긋하고 자연적이었다. 이것이 개발과 미개발의 차이라면 차라리 미개발을 택하겠다.



나이로비에서 불과 몇키로 떨어지지 않은 농촌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다.



라스틱 그릇류가 대부분이었다.

쿠로에 대로변에 자리잡고 있다는 대사관 업무용차량의 운전기사 프란시스(Francis-Niehia)의 집에 들러 농촌의 생활상을 한번 살펴볼 호기심이 생겨 그 친구보고 “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골라 보라”고 하니 이 친구 간이 콩알만한지 이것저것 주물럭거리더니 프라스티제 대형 대야를 하나 고른다. 그리하여 나는 본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같은 크기의 대야 2개와 담요 한장을 선물로 샀다.

프란시스네 집은 나이로비 중심가에서 승용차로 불과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근교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먼저 동리입구에 있는 프란시스의 부모님택에 들렀다. 프란시스의 아버지는 나이74세인데도 매우 정정하고 키도 크고 위엄이 있어 보이며 인사를 나누는데도 범절이 있어 보였다. 정원은 꽤 넓고 잔디가 깔려있고, 도로변 울타리는 키 큰 수목으로 둘러쳐져 있다. 매우 아늑하고 평화스러운 농가풍경이다. 가옥은 작은 규모로 세동이었으나 그중 한동은 폐가가 되었고 두동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동은 노부부가 거처로 쓰고 또다른 한 동은 주방으로 쓰고 있었다.

지붕은 이 지방 민가가 다 그러하듯이 함석지붕이고 이 함석지붕위에 내리진 빗물을 흙으로 받아 물탱크에 모아 식수로 쓰고 있는데 물맛을 보니 깨끗하고 맛도 좋다. 그리고 청소, 목욕 등 일반생활용수는 댐의 물을 공동으로 揚水·配管하여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꼭지까지 연결해 쓰는데 수량은 항상 풍족하다고 한다.

거실에는 한쪽벽 밑에 불피우는 자리(Fire Place)가 있어 장작을 피워 실내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꾸며져 있고 침실은 노부부가 각각 한방씩 쓰고 있는데 좁은 방에 허름한 목침대 하나씩 놓여 있고 벽에는 옷가지가 걸려 있는데 전기시설이 없어 낮시간인데도 킁킁하고 음산하기 짝이 없다. 변소는 가정 한가운데 시멘트 벽돌로 축조되어 있는데 재래식이고 분뇨는 정원 잔디밭에 땅을 파고 묻어주면 잔디에 비료가 된다. 욕실은 변소와 함께 붙어 있는데 콘크리트바닥에 물을 길어다 쓸 대야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이다.

불과 30분 거리에 이나라의 수도이자 초현대적인 도시인 나이로비가 위치하고 있는데도 이 가까운 근교 농촌에는 전기도 위생급수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곧 오랜 식민통치(영국)하의 對 원주민문맹정치가 어찌했는가를 웅변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다.

6월 8일 10시 20분경 당초예정시간보다 20분 늦게 제 14차 관리이사회(Governing Council)는 개최되었다. 먼저 前次會議 의장단 중 의장의 불참으로 부의장의 한사람인 불가리아의 칸첼(Kantscher)의 개회인사에 이어 今次會議의 의장단 선출에 들어갔다. 이 회의의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3명 서기 1명으로서 의장은 매회 아프리카, 아시아, 서유럽, 동유럽, 북미, 남미 등 6개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맡게 되고 부의장과 서기는 여타지역에서 맡게 된다.

전일의 이들 지역대표들간의 예비회의 결과에 따라 今次會議에서는

중남미그룹(Latin America Group)의 파나마(Panama)대표가 의장을 맡고 아프리카 그룹의 보츠와나(Bostwana)대표와 아시아그룹의 인도(India)대표 및 동구권의 우크라이나 대표가 부의장을 맡도록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중남미그룹의 칠레(Chile)대표가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맨먼저 발언권을 얻어 자기네 라틴아메리카그룹의 파나마 대표인 일루에카(Illueca)를 의장으로 천거했다. 그러자 사회가 각지역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먼저 아프리카그룹의 수단(Sudan)대표에게 이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견을 묻자, 이 친구 탄전을 피우고 있다가 어리둥절 당황한 모습으로 부산하게 뭔가 메모해둔 종이쪽지를 찾아 들고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프리카그룹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 보츠와나 대표 부탈레(Mr. C. J. Butale)를 추천한다”고 발언한다. 그래서 사회가 다시 칠레대표가 천거한 의장으로서 파나마대표에 동의여부를 묻자 이 친구는 의장선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또다시 앵무새처럼 같은 메모지에 적힌 내용대로 “우리 아프리카그룹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 보츠와나대표를 천거한다”고만 되풀이하여 장내가 어수선스러워지고 여기저기에서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러했거나 말거나간에 의장단선출은 전일의 각본대로 무난히 끝났다.

이날부터 시작된 회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사이의 지역별대표들의 간담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이사회 및 전체회의 매일 저녁의 각국대표 및 UNEP 사무총장 초청 리셉션 파티 등 바쁘게 진행되었다.

회의중 크게 눈길을 끈 연설은 UNEP사무총장인 모스타파, 케이, 톨바박사(Dr. Mostafa K. Tolba)의 개회연설 “The Politics of fusion”과 노르웨이 수상이자 UNEP의 환경/개발특별위원회의 의장인 그로할렘 브룬트란트여사(Mrs. Groharlem Brundland)의 동위원장의 보고서 “The Report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라 할 수 있다.

톨바박사는 그의 연설에서 “From the Politics of fission to fusion (대립에서 융화로)”을 강조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준비에 매년 1조억불(1,000 billion US dollars)이 허비되고 있는데 남과 북 동과 서가 융화의 정치를 펴게 되면 이 돈으로 100억의 인구가 향후 50년동안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전 세계에 환경적 르네상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브룬트란트여사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필히 변경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 인류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가치관의 전 지구촌적차원의 새로운 논리(New global ethic)의 정립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의 정치철학을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두 연설은 참으로 명문장에 명연설로서 감명깊었다.

6월 8일 제 14차
관리이사회가 시작
되었다.



**UNEP 사무총장
톨바박사를 만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태평양과학회의 때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87년 6월 12일 이날은 동행한 두 동료들을 나이로비 회의장에 남겨둔채 나홀로 귀국길에 올라야 하는 날이다.

새벽 5:30분에 기상하여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다보니 路面과 가로수에 물기가 머금어 있고 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다닌다.

여느때 처럼 호텔내 카페테리아(Mara)에서 콘티넨탈식으로 간단히 아침요기를 하고 미리 예정된 톨바박사와의 공식면담을 위해 서둘러 회의장에 도착하여 09:30 ~ 09:50 사이 약 20분간 톨바박사의 집무실에서 면담했다. 나와 톨바박사와는 이번이 세번째 만나는 셈이다. 1984년 프랑스 베르사이유에서 개최된 세계산업환경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두번째가 1985년 역시 이곳 나이로비에서 제 13차 UNEP 관리이사회때였고,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 자리에서 톨바박사는 2년전 우리가 이 방에서 만났던 것을 당시 내가 그에게 준 신라시대의 모조금관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해 주었으며, 우리들간에는 금년 8월말 톨바박사의 태평양과학회의참석을 위한 방한일정과 우리 환경청 직원의 UNEP 상주파견근무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톨바박사는 우리 한국이 질서도 있고 통치체제가 자리잡힌 것을 크게 찬양해 주었다.

톨바박사와의 면담을 마친 나는 오전회의에 참석하여 11시 32분부터 39분까지 약 7분간에 걸쳐 開途國의 대표격인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실태를 소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대표 모두가 명년 9월의 서울올림픽경기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의하여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제2회 환경보전 생활수기모집”

우리 세대와 우리 자손이 살아갈 유일한 땅인 이 강산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줄일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 명예회원께서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겪으신 생활수기를 공모, 여러분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자격 : 본 협회 “환경보전명예회원”
- 원고매수 : 10매 이상 (200자)
- 접수방법 : 연중 계속 접수
- 게재 : “환경보전협회보”(격주간) “환경보전명예회원보”에 게재 (소정의 고료 지급)
- 시상 : 게재된 수기들을 연말에 종합심사하여 시상함.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의빌딩 12층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홍보부